

성명	김희진	수험기간	2023.02.~2024.07.
학교	한양대학교	전공	신소재공학부
키워드	생동차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제61회 변리사 시험 합격자 김희진입니다. 기득을 준비하던 중 합격 소식을 접하여 수기를 쓰고 있는 지금까지도 합격이 잘 믿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작성합니다.

점수

1차 (커트라인 76.66점)

산업재산권법	민법	자연과학개론	평균
92.5	95	72.5	86.66

2차 (커트라인 55.22점)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평균
60	46.66	61.66	67.66	56.11

1차 공부

1차의 경우 다른 분들에 비해 많은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기본강의와 최신판례강의 정도만이 필수적인 강의이고 나머지 강의는 본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반복해서 듣는 편이 전체적인 효율에 좋아 들을 수 있는 강의는 최대한 들으려 했습니다.

	2월	3월	4월	5월	6월
민법	기본강의				
특허법			기본강의		
상표법					기본강의
디자인보호법				기본강의	
물리			기본강의		
생물			기본강의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민법	중급강의 + 문제풀이				최종정리	최신판례
특허법	조문강의					최종정리
상표법	기본강의					최종정리
디자인보호법						최종정리
지구과학			기본강의	문제풀이		

【민법】 [95점]

강의 : 김동진 기초강의, 기본강의, 중급강의, 문제풀이, 최신판례

교재 : 민법공방, 민법공방연습

☑ 기초, 기본강의 수강 (2~3월)

2월부터 김동진 교수님의 민법 기초강의와 기본강의를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강의를 수강한 뒤에는 기본강의자료로 함께 나눠주시는 O/X자료를 한 회가 끝날 때마다 풀었습니다. 하루에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7개까지 강의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치 강의를 모두 들은 뒤에는 기본서에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판례의 결론을 숙지하였습니다. 채권총론 초반까지는 집중력 있게 들었으나, 채권자취소권 부분부터는 집중력이 조금 떨어져 일단 완강이 우선이란 생각으로 최대한 밀리지 않고 강의를 수강하려고 했습니다.

☑ 중급강의 수강 (8~9월)

4월에는 특허법과 생명과학 강의 수강에 밀려 민법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민법이 휘발성이 굉장히 강한 과목이다 보니 4월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부분이 휘발되었고 오랜 시간 앉아 있어도 몇 페이지 넘기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중급강의가 필수는 아니라는 수기를 많이 보아서 중급강의를 들어야 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4월에 제대로 하지 못했던 복습으로 인해 채권법은 백지상태에 가까워 채권법만 중급강의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로 중급강의는 채권법-물권법-민법총칙 순으로 기본강의와 반대 순서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채권총론과 각론만을 들으려고 했으나, 강의를 들으며 실력이 느는 것이 체감되고 회독 속도 또한 정말 빨라져 끝까지 수강하였습니다. 기본강의 이후 회독 속도가 너무 나지 않아 힘드신 분들은 중급강의를 빠르게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문제 풀이 수강 (9~10월)

강의 이전 민법공방연습을 해당 강의 분량만큼 미리 풀어보고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중급강의 이후 민공연을 보았을 때 90%는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보는 정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을 듣지 않을까 고민하였지만, 중요한 것을 반복하는 것이 시험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여 문제 풀이 강의 또한 수강하였습니다.

☑ 1차 시험까지의 기간 (10~2월)

문제 풀이 강의 이후에는 민법공방(기본서)와 민법공방연습을 번갈아 가며 민총, 물권, 채총, 채각 단원을 하루에 한 단원씩 보았습니다. 12월 정도부터는 (민총, 물권) / (채총, 채각) 이런 식으로 두 덩이로 나눠서 나눌 동안 두 책을 1회독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최신판례 강의가 올라오는 대로 수강하였습니다.

☑ 기본서 복습 방법

기본강의 이후 중급강의 수강 전까지는 기본서의 글을 평면적으로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줄글 읽듯이 모든 내용을 같은 선상에 두고 읽었던 것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중급강의 수강 이후부터는 복습하고자 하는 부분의 목차들을 먼저 적어 기본서 옆에 두었습니다. 목차별 준위를 파악한 뒤, 각 본문이 어떤 목차 아래 있는지를 의식하며 회독하였습니다. 이때 기본강의 때 받았던 O/X 자료도 함께 풀었습니다. 민공연 이전까지는 따로 기출이나 객관식 문제 풀이를 진행하진 않았습니다.

☑ 기타

다음 카페를 통해 여러 자료를 올려주시는데, 강의 중 복잡했던 부분이나 카페에 올라온 질문 중 일부를 선별하여 동영상강의를 올려주십니다. 전반적인 수험생활의 방향에 대해서도 항상 말씀해 주셔서 1차 시험 날까지 버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글이 올라왔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이때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민법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요약서를 따로 만들거나, 기본서를 여러 권 보기 등) 짬돌 특강은 심심할 때 부담 없이 한 번 수강하였으나 복습하지는 않았습니다. 민법의 경우 산재법과 달리 조문집을 따로 보거나, 암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산업재산권법 조문 암기 방법】

산업재산권법의 경우 1차 선지에서 조문이 가장 많이 나오기에 조문을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루지 않고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문 암기는 빈칸 채우기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빈칸 채우기를 시도해 봤습니다만 조문 전체를 보기보단 위치에 따른 빈칸 단어만 외우게 되어 몇 번 하지 않고 그만두었습니다. 저의 조문 암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문 암기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막연히 조문 순서대로 제목을 외웠습니다. 특허법의 경우 1조부터 232조까지 제목을 차례로 외우면서 어떤 조문들이 있었는지 가볍게 떠올렸습니다. 이후 각 조문의 구조를 외웠습니다. 30조를 예시로 들면 제목은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1항 2항 3항까지 존재하고 1항과 3항에는 각호 1과 2가 달려있음. 이런 식으로 모든 조문의 구조를 그릴 수 있게 외웠습니다. 이후 각 구조에 내용을 채워 넣었습니다. 1항은 시기적 조건 등이 포함되어 있고 1호는 의사에 기한, 2호는 의사에 반한 공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됨. 2항은 의사에 기한 공지에외주장 시 취지 기재와 증명서류 제출 조건, 3항은 1항 1호에 따른 공지에외주장 보완 절차에 관한 내용이 있음. 각호에는 시기적 요건이 적혀 있음. 이런 식으로 조문집의 문장을 그대로 외우기보단 포함된 내용을 구조에 맞게 배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출에서 자주 물어보는 [할 수 있다. vs. 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심판장 등 주체 등에 밑줄을 그으며 조문 문제로 나올 만한 것들은 정확한 단어로 기억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특허법】 [19/20]

강의: 임병웅 기본강의, 조문강의, 박형준 최종정리강의

교재: 리담 특허법, 도해 특허법, 기출문제집, 조문집, 해례실전모의고사

☑ 기본강의 수강 (4~5월)

민법 완강 이후 특허법 기본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진도를 빠르게 나갈 수 있었던 민법과 달리 특허법은 하루에 3~5개의 강의를 듣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수기에서 특허법은 초기 진입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보아 완강을 목표로 버티며 들었습니다. 복습은 기본서를 읽기보단 강의노트를 보며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떠올리는 정도로 하였습니다. 앞의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았더라도 일단 강의를 들었고, 듣다 보니 어느 순간 강의노트에 있는 그림이 머릿속에서 쑥 그려졌던 것 같습니다.

☑ 공부 방법

강의노트 첫 장에 특허법 전체 체계도가 그려져 있는데 이를 똑같이 그리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특허 공부 시작 전이나 집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에 한번 쑥 그려보며 특허법 전체를 조망하고자 하였습니다. 완강 이후 리담 기본서가 부담되어 도해 특허법과 강의노트로 회독하였습니다. 헛갈리는 개념이 있을 때만 리담을 펼쳤고 시험 보기 전에 기본서를 한 번은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1월 중에 한 번 쑥 정독하였습니다. 12월까지 기출문제집만을 풀었고, 답안을 순서대로 다 암기하여 해례실전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이때 틀린 문제를 열심히 복습하기보단 새로운 문제 유형에도 당황하지 않고 끝까지 풀어나가는 것을 연습했습니다. 판례들은 기출에서 O/X를 가릴 수 있는 정도로 결론만 공부하였고 판례강의를 따로 듣거나 2차처럼 판례 문구를 암기하지는 않았습니다. PCT의 경우 1차에서는 틀려도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2차에서 한 문제가 통째로 나왔을 경우를 대비하여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조문 암기에 많이 투자하였고 시행규칙은 따로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상표법】 [9/10]

강의: 김인배 기본강의, 한경훈 최종정리강의

교재: 리담 상표법, 도해 상표법, 조문집

개인 사정으로 7월은 공부하지 못하여 6월과 8월에 기본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상표의 경우 특허, 디자인보호법 이후 조금의 여유가 생겨 기본강의 시간에 나오는 판례들은 최대한 공부했습니다. 강의노트에 정리된 판례들은 어떤 사건에서 어떤 판례가 실시되었는지, 사실관계는 어떠한지 확인했습니다. 1차 시험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으나 판례들을 꼼꼼히 봐두었던 것이 2차에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객관식 문제는 따로 풀지 않았고 조문집과 기출문제로 공부하였습니다.

【디자인보호법】 [9/10]

강의: 김인배 기본강의, 김진주 최종정리강의

교재: 리담 디자인보호법, 조문집

☑ 기본강의 수강 (5월)

특허법 완강 이후 바로 디자인보호법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민법 이후 특-상-디 순서대로 듣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저는 디자인보호법 강의가 먼저 올라와 특-디-상 순서대로 들었습니다. 특허 이후 상표나 디자인의 경우 수강 순서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이 상대적으로 양이 적고 특허와 유사한 부분이 많아 특허 복습을 함께 진행하기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 공부 방법

특허와 비교하며 차이점을 위주로 공부하였습니다. 디자인의 성립성이나 특유디자인을 위주로 공부하였고 매일 디자인보호법을 공부하기보다 일주일에 하루 또는 이틀에 걸쳐 전 범위를 회독하였습니다. 특허, 상표와 마찬가지로 기출문제와 조문 암기에 대부분의 시간을 쏟았고 판례나 시행규칙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않았습니다.

【자연과학】 [72.5점]

1차 시험 수기에서 공부 방식이 가장 다른 부분입니다. 자연과학 베이스 유무가 모두 다르고, 법 과목과 달리 전략적 과목이기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물리, 생명, 지구과학에서 고득점을 하고 화학의 난이도 하와 중문제 일부를 풀어내는 것을 목표로 공부하였습니다. 다만, 시험장에서 문제지를 본 이후 물리보다 화학이 풀 수 있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여 화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습니다. 자연과학개론에 한해서는 자신이 시간 내에 풀어낼 수 있는 문제인지 빠르게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물리 [4/10]

강의 : 류웅선 기본강의

교재 : 통합물리

(1) 기본강의 수강 (4월)

고등학교 물리 I, II 대학 일반물리1, 2를 수강하였으나 변리사 시험에 나오는 범위에 대해 공식과 개념을 한번 정리하고 싶어 기본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이었기에 4월 특허와 동시에 수강하였습니다. 복습을 거창하게 하지는 않았고, 까먹고 있던 공식들을 한 장에 정리하여 이틀에서 사흘 간격에 한 번씩 가볍게 읽어보았습니다.

(2) 문제 풀이

기본서를 제외하고는 따로 물리 문제집을 풀지는 않았습니다. 기출만 꾸준히 풀었습니다. 하나의 파일에 정석 풀이를 적어두고 기출문제를 틀린 경우에는 어느 부분에서 실수가 발생했는지 확인하면서 공부했습니다. 다만, 시험장에서 고득점을 받지 못하여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 화학 [5/10]

강의: 없음

교재: 새로운 화학

물리와 동일하게 고등학교 화학 I, II와 대학 일반화학1, 2를 수강하였습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본 뒤, 시험에서 모든 문제를 시간 내에 풀어내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난이도가 쉬운 문제들만을 목표로 하여 몇 단원들만 선별하여 공부하였습니다. 기체, 양적 관계, 산·염기 적정 등 풀이 시간이 긴 문제들은 한 번 정도는 풀어보며 기억을 되살려두는 정도로만 하였습니다. 공부량이 적고 암기로 풀 수 있는 NMR이나 유기화학을 새로 공부하였고 이외의 시간은 문제를 빨리 풀어내기 위한 암기를 하였습니다. 자연과학개론은 시간이 매우 부족하기에 한 문제라도 더 풀기 위해 기계적으로 답할 수 있을 정도로 암기하였습니다. 화학 또한 물리처럼 한 페이지에 몇 가지 공식들을 적어두고 물리 공식을 볼 때 함께 보았습니다.

☑ 생명과학 [10/10]

강의: 최성윤 기본강의

교재: 새로운 생물, TB 생물 기본문제집, 변리사 대비 실전 문제집

(1) 기본강의 수강 (4~5월)

물리, 화학과 달리 생명과학은 고등학교에서도 배우지 않았던 과목이었습니다. 변리사 시험 기출을 보았을 때 좁고 깊게 공부하는 것보단 얇고 넓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교양수업처럼 최대한 즐겁게 들으려고 했습니다.

(2) 문제 풀이

기본강의 수강과 함께 TB 생물 기본문제집을 풀었습니다. 처음 문제를 풀었을 땐 정답률이 30%도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요약본을 만들어 문제에서 알게 된 사항들을 꾸준히 정리하며 적어도 이틀에 한 번은 생명 공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세포호흡, 광합성, 세포구조 등 빈출 파트는 물론 출제 빈도가 낮은 식물학이나 인체와 관련해서도 최소한 TB 문제집에 있는 것만은 모두 풀 수 있게 준비하였습니다. 9월 무렵이 되자 TB 문제집의 문제들은 대부분 암기하였습니다. 이후 변리사 대비 실전 문제집을 구매하여 해당 문제집의 내용까지 요약본에 정리하여 암기하였습니다.

(3) 요약본 제작

정답률이 너무 오르지 않아 새로운 생물의 목차를 뼈대로 본문 내용 요약, 동의어, 혼동 개념, 문제집에만 적혀 있는 예시를 단원당 한 페이지에 정리하였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요약본에 문제집과 기본서의 내용을 모두 적어두어서 시험장에도 들고 가서 점심시간에 1회독 하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회독을 진행해도 생명에 대한 감이 잡히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로 요약본을 제작하였으나, 최대한 수험서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지구과학 [10/10]

강의: 박준희 기본강의, 문제 풀이

교재: High-End 지구과학

지구과학은 고등학교 지구과학1만을 수강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개념은 알고 있었지만 어떤 범위까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감이 잘 잡히지 않아 10월에 기본강의를 나흘 만에 수강하고 11월에 이어서 문제 풀이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기본서에 문제가 수록되어 있어 기본강의를 듣고 필요한 부분을 암기하며 강의를 수강하며 문제도 함께 풀었습니다. 강의에서 여러 암기 방법을 가르쳐주시는데 그로 인해 암기 부담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판서 노트가 따로 준비되어 있어 강의에 더욱 집중할 수 있고 혼자 복습하기도 좋았습니다. 기본서에 내용이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어 High-End 교재 하나만 보았습니다.

【기타】

☑ 준비 없이 1차 시험 응시

민법총칙을 듣는 중 60회 1차 시험을 응시하러 갔습니다. 공부 시작 2주 만에 시험을 응시하러 간 것이어서 민법총칙 일부 문제와 자연과학개론을 제외하고는 풀 수 있던 문제가 없었습니다. 공부하지 않고 1차 시험을 응시하는 것은 진입 결정에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저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 공부 비율

민법:산재법:자연과학=1:1:1의 비율이 이상적인 비율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하루에 균등하게 시간을 배분하기보단 1주일 단위로 1:1:1의 비율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민법 중급강의를 추가로 수강하면서 그 시기에는 민법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아졌고 그 대신 자연과학의 비중이 좀 낮아져 자연과학을 짧고 자주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산재법의 경우 특상디를 하루에 모두 보기가 어려워 앞서 말했듯 디보를 하루나 이틀에 몰아서 보았고 특상은 함께 보았습니다.

☑ 1차 기간 슬럼프

1차를 안정적으로 붙어야겠다는 생각에 2월부터 전업으로 1차를 준비하였습니다. 10월 말쯤에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다는 느낌을 받았고, 1차 시험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 슬럼프가 왔었습니다. 민사소송법 기본강의를 듣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해서 방황하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12월까지는 모두 인터넷 강의로 수업을 들었으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 1월에 산업재산권법 최종 정리 강의를 현장 강의로 듣고 왔습니다. 같은 공간에 같은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옆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1차 시험 당일의 상위 600명이 합격하는 것인데, 내가 안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기본서와 기출문제를 회독하였습니다. 슬럼프를 극복했다기보단 1차 시험 당일까지 버티고 견딘 것 같습니다.

☑ 시험장 자료 선정

시험장에서 볼 자료는 수험기간 내내 봤던 것들로만 준비하였습니다. 쉬는 시간 동안 새로운 내용을 넣기보단 알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며 불안함을 잠재우는 용도로 활용하였습니다. 최신판례, 특상디 조문집, 물리/화학 공식, 생명 요약집, High-End 교재를 들고 갔습니다. 1교시와 2교시 사이에 자료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짧아서 민법은 간단하게 최신판례자료만 훑었습니다.

2차 공부

1차 시험에 대한 가답안이 당일 17시에 공개됩니다. 답안이 올라온 직후 채점하여 안정권임을 확인하고 1주일 정도 쉰 뒤 2차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3월	4월	5월	6월	7월
민사소송법	기본강의 + 사례강의		기초GS	실전B	모의고사, 회독
특허법	기초GS +		실전B		
상표법	기초GS +		실전B		
디자인보호법			기초GS	실전GS	

【민사소송법】 [60점/21p]

강의 : 이창한 기본강의, 사례강의, 기초GS, 실전B

교재: 통합 민사소송법, 사례 민사소송법, 2024 핸드북 진도별 기출문제

☑ 기본강의(3월) 사례강의(4월) 수강

3월부터 민사소송법 기본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학원에 나가 특허/상표 기초GS+를 수강하여 평일에 강의를 듣는 게 전부였습니다. 복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어떻게 답안지에 작성해야 할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강의를 쳐내기에 바빴습니다. 5월 기초GS 이전에 사례강의까지 완강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 기초GS(5월), 실전B(6월) 수강

기초GS와 실전GS 모두 책 없이는 논점도 잡지 못하였고 논점을 잡더라도 그에 대한 답안을 쓰지 못했습니다. 실전B에선 최대한 작성하려고 노력한 뒤, 시간이 남는 경우 밖에 답안이 비치되어 있으면 답안을 보며 그 시간 동안 암기하려고 하였습니다. 평일에는 통합과 사례를 번갈아 가며 회독하였으나 머리에 들어온다는 느낌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 7월 공부 방법

사례 민사소송법과 GS를 중심으로 암기를 진행했습니다. 답안을 문제보다 먼저 보았습니다. 답안의 논리 구조와 목차를 암기한 뒤 이를 문제와 매칭시켰습니다. 한 달 뒤에 2차 시험을 보러 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서 내용과 판례를 정밀하게 외우기보다 논점-학판검 순서대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적을 수 있게 외우려고 했습니다. 조문 내용은 시험장에서 찾아 쓸 생각으로 조문 번호만을 외워 암기 부담을 줄이려 했습니다. 사례집과 GS 목차는 통암기했고 7월에 추가로 올려주시는 동영상 자료에 나오는 부분만을 통합에서 발췌하여 암기하였습니다. 따로 풀답안을 작성할 시간은 없었기에 목차만 잡아보는 식으로 암기를 확인하였습니다.

【특허법】 [46.66점/24p]

강의 : 박형준 기초GS+, 실전B, Top10 판례강의

교재: 준특허법, 준특허 통합사례집 상

☑ 기초GS + 수강 (3~4월), 실전B 수강 (5~6월)

3월 첫째 주 주말부터 기초GS를 수강하였습니다. 평일에는 민사소송법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도 벅차 금요일 밤에 GS 논점 범위의 기본서만 가볍게 읽고 갔습니다. 주말 아침 학원에 조금 일찍 가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지, 목차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등을 생각하며 암기하였습니다. 암기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에 책을 보면서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초기에는 답안을 작성한다기보다 필사하는 게 아닌가 싶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민사소송법이 하기 싫을 때 틈틈이 총알 암기자료를 외웠습니다. 실전B 수강 중에 Top10 판례강의를 들었습니다.

☑ 7월 공부 방법

특허법은 기본서 회독을 주로 하였습니다. B, C급 논점을 눈에 바르는 것보다 A급 논점을 잘 쓰는 것을 목표로 하여 각주나 참고 표시가 붙어있는 내용은 수업 시간에 언급된 것들만 가볍게 보았고 나머지는 보지 않았습니다. 6월까지 논점별로 문제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기본서에 적어두어 GS회독을 빠르게 돌릴 수 있었습니다. 간접침해를 예시로 들면 [타용도 없음 제시, 전용품의 경우 공용성/전용성 나누기, 방법침해 > 전용품 판매 시 직접침해 가능성] 등을 적어두었습니다. 따로 기출을 풀어보지는 못했고 사례집을 통해 답안만 보았습니다. 6월까지 총알 자료를 모두 암기하여서 기본서를 보며 암기 정밀도를 올렸습니다.

☑ 61회 시험

답안 페이지 수가 많은 이유는 1번에서 분량, 시간 조절에 실패하여 8페이지를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파본 검사 시간에 문제 페이지가 너무 많아 파본인 줄 알았습니다. 분명 빈 페이지가 있을 거라고 다시 한번 문제지를 보는데 모든 면에 문제가 적혀 있어 굉장히 당황하였습니다. 시험 시작 전 5분 동안 빠르게 멘탈을 회복하려고 ‘다른 사람들도 다 당황했을 거다’, ‘동차 때 처음 보는 페이지 수가 나와서 럭키.. 내가 기특이었으면 이것보다 훨씬 당황하고 긴장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려 했으나 실패한 것 같습니다. 시험장에서 특히 1번 문제가 주는 압박이 상당한데 빠르게 평정심을 되찾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표법】 [61.66점/23p]

강의 : 한경훈 기초GS+, 실전B, 최신판례강의

교재: 점, 선, 피날레

☑ 기초GS + 수강 (3~4월), 실전B 수강 (5~6월)

특허와 동일하게 3월부터 기초GS를 수강하였습니다. 1차 때 나름대로 열심히 했으나 2차는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상표 답안을 쓸 때마다 암담해졌지만 언젠가 되겠지 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썼습니다. 기초GS 마지막 회차에 피날레 교재로 상표법 전 범위를 쫓 정리해 주신 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6월까지의 기초GS 강의에서 보는 판례들을 제외하고 따로 판례집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암기집에 있는 판례들만을 조금 외웠고 상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했습니다.

☑ 7월 공부 방법

어느 하나 쉬운 과목이 없었지만 저는 그중 상표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과락만 나오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계속 기본서 회독과 암기를 미뤄두었던 터라 7월 한 달간 기본서 회독은 무리라고 판단했습니다. 기초GS 마지막 시간 피날레 정리가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어 피날레 교재와 GS문제, 최신판례 정리본만 모두 암기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걸 목표로 공부하였습니다. 시험장에서도 피날레 교재에 적혀 있는 목차 그대로 작성하고 나오면 과락은 면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걸고 하루 상표 공부 시간 80%는 피날레를 외웠습니다. 피날레에는 판례 문장이 키워드별로 적혀 있어 상표 판례는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하였습니다. 피날레를 모두 외운 뒤에 판례집의 관련 법리 부분만 쫓 보았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은 최신판례 정리본에 있는 판례만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풀답안을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고 최신판례들의 사안 포섭만 한 번씩 써보았습니다.

【디자인보호법】 [67.66점/19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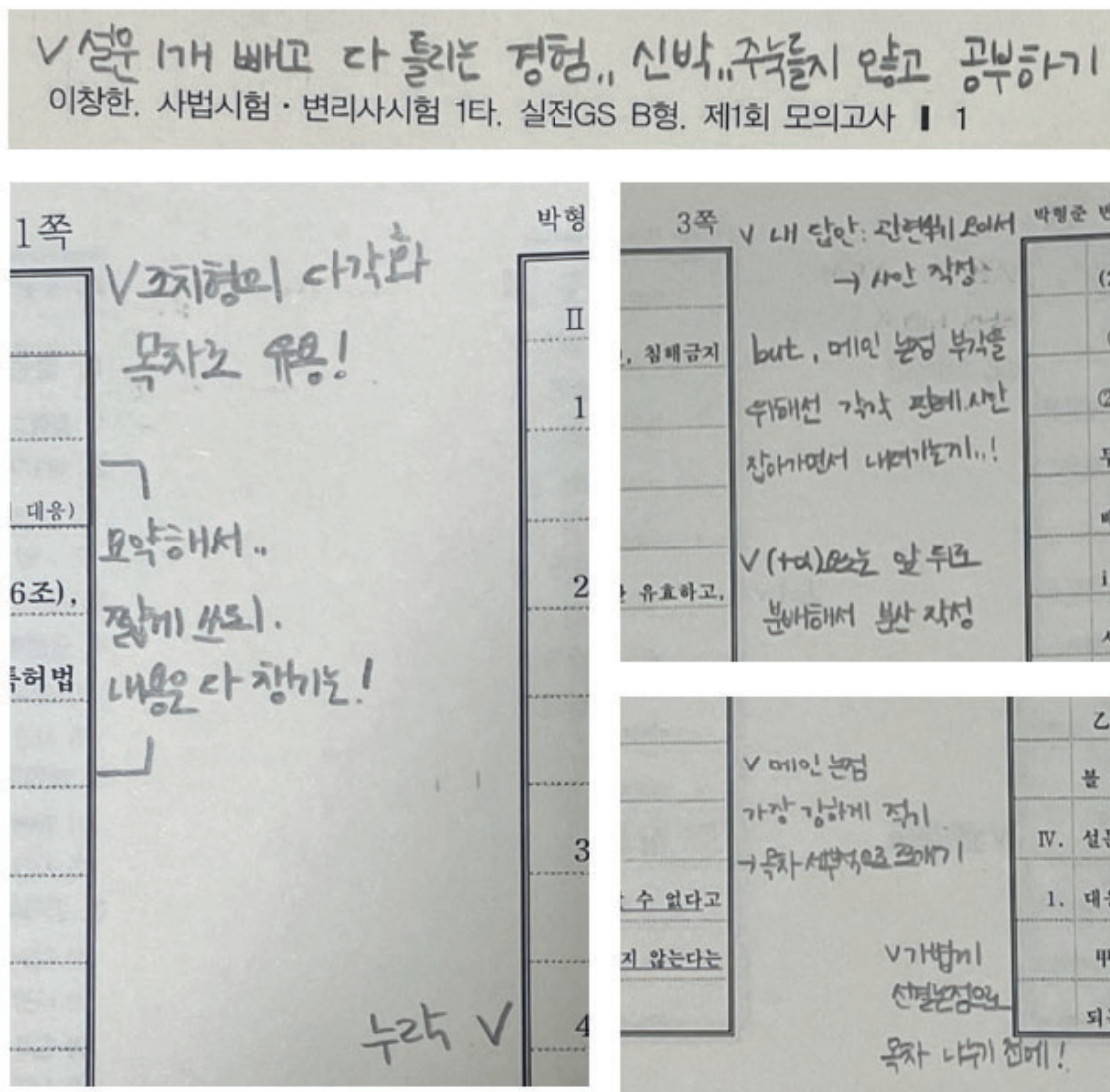
강의 : 김진주 기초GS, 실전GS

교재: 펄 디자인보호법

1차에서 배운 과목이기도 하고 특허, 상표 답안과 유사하게 작성할 수 있다고 하여 디자인보호법을 선택하였습니다. 1차 시험 이후 5월까지 디자인보호법 기본서는 따로 펴보지 않았습니다. 민소, 특허, 상표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선택과목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5월에 기초GS를 수강하며 시작했고 나눠주신 암기집에 있는 내용만 다 외우고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기본서는 판례 문구와 결론을 확인하는 데 활용하였습니다. 6월과 7월에도 다른 과목들에 치여 디자인보호법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고 암기집만을 보았습니다. 5월 기초GS를 들으며 답안에 꼭 작성해야 할 것을 암기집에 적어두어 답안 작성 감을 잃지 않을 수 있던 것 같습니다.

【GS 복습 방법】

2차 기간 중 유일하게 꾸준히 했던 공부 방법입니다. GS 복습은 작성 직후 쉬는 시간에 최대한 끝내려 했습니다. 문제 풀이 과정과 내 답안을 가장 잘 기억하는 시기이기에 이 시간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님의 답안을 읽으며 논점 누락, 이탈, 선결 논점, 깔끔한 목차형식 등을 확인하고 답안 옆에 작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상단에는 오늘 답안의 느낌을 적어두고 추후 점수와 비교하였습니다. GS를 쓰면 진이 다 빠지고 남들은 다 잘 쓴 것 같고 답안만 보면 우울해져서 구석에 주눅 들지 말기.. 열심히 공부하기.. 이런 내용을 적으면서 멘탈 관리도 이 시간에 하였습니다. 모든 과정을 마친 후 시간이 남으면 기본서에 GS 출제표시를 하였습니다. 평일에 GS 출제 표시를 기본서에 하는 것이 생각보다 귀찮아서 최대한 학원에 있는 시간에 모두 표시하고 오려고 했습니다. GS 해설 시간에도 쉬는 시간처럼 옆에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이후 답안 채점이 올라오면 모범답안, 가독성 답안과 비교하며 작성해 둔 것들을 다시 읽는 정도로 복습하였습니다.



【답안】

☑ 답안 작성 마인드

답안 작성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암기가 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법학 시험에서 요구하는 정형화된 글쓰기 방법이 있음에도 나의 답안을 새롭게 작성하려고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글을 작성한다기보단 강사님 답안을 모방하여 작성한다고 생각한 뒤부터는 답안 작성 부담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못 쓰더라도 답안을 보고 학습하면 되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래도 잘 못 쓰면 우울하긴 했습니다.) 이후 내가 A와 같이 작성하였는데 A로 작성해도 되는가? 하는 물음보단 A내용의 옳고 그름만을 확인하고 답안 작성은 강사님의 답안처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답안 스타일을 따라 하기 위해 한 강사님의 수업만 들었습니다.

☑ 목차 잡기

저는 목차를 따로 잡지 않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처음엔 목차 잡는 방법을 몰라서 잡지 못했는데, 이 상태로 일단 GS를 쓰다 보니 목차를 안 잡는 게 편해졌던 것 같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선 어느 정도 정형화된 목차가 머릿속에 그려져서 자주 누락하는 논점들만 문제 아래 적어두고 바로 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목차를 잡지 않고 답안을 작성하다 보면 문제의 물어본 바를 적지 않고 장황하게 다른 이야기만 적는 경우도 생겨서 마지막 목차로는 꼭 물어본 바에 대한 답을 빼서 적었습니다.

☑ 가독성

처음 답안지를 작성한 뒤 제 답안지를 다시 봤을 때의 충격이 가시지 않아 답안 가독성에 신경을 많이 썼던 편입니다. 빠르게 작성해야 하는 시험 특성상 글씨 자체를 예쁘게 작성할 수 없더라도 형식을 통해 가독성을 일부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 괄호 목차까지 내려가면 목차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양 괄호 목차까지만 사용하려 했습니다. 목차는 한 줄의 2/3가 넘어가지 않게 간결하게 쓰려하였고 목차 준위별로 들여쓰기를 맞춰 형식을 통일했습니다. 평소 글씨 크기가 작는데 큰 글씨가 잘 보이는 것 같아 크게 쓰려했습니다. GS 시간 이외에 혼자 답안을 작성하며 어떤 형식으로 쓰는 게 조금이나마 보기 좋은지 여러 번 써보았습니다. 주변에 다른 분의 답안을 볼 기회는 없어서 가독성 1위 답안을 참고하며 꾸준히 고쳐나갔습니다.

☑ 시간 관리

GS에서 시간 관리 연습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1페이지에 6점 분량을 표준으로 분량에 맞춰 답안을 작성하려 하다 보니 항상 1번 문제를 쓰고 나면 50분이 지나있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다만, 61회 시험부터 답안지 분량이 20페이지로 늘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초GS 때는 쉬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작성하여 답안을 작성했으나 실전GS부터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풀고 제출만 하자는 것을 목표로 잡고 6월부터는 분량에 구애받지 않고 문제 읽고 풀이 5분, 1분에 작성할 수 있는 분량을 1점이라고 생각하고 시간에 맞춰서 답안을 작성하려 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특히 1시간 2분, 상표 56분, 민소 58분 정도에 걸려서 1, 2번 문제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기타】

☑ 월요일 휴식

민사소송법 기본, 사례강의를 제외하고 모두 현장 강의로 들어 주말에 GS를 다녀오면 녹초가 되었습니다. 조금한 마음에 월요일에도 공부해 보았으나, 이 상태로는 7월까지 공부할 수 없을 것 같아 월요일은 꼭 쉬었습니다. 동차생에게 7월까지지는 매우 짧은 기간처럼 느껴지지만, 체력 관리는 정말 필수적입니다. 저는 체력 관리를 실패한 편이라 드릴 말씀이 없지만 건강하게 잘 챙겨 먹으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스테디, 자투리 시간

저는 1차와 2차 모두 스테디를 하지 않았습니다. 2차 기간에 스테디가 필수적인 것 같아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혼자 공부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여 스테디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투리 시간도 그 시간에 원할 더 하려고 하면 체력이나 집중력을 갉아먹어 GS 직후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얹드려 쉬었습니다. 자투리 시간 활용도, 스테디도 본인 상황에 맞게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판례 암기 방법

통상 판례 암기 방법은 두문자 또는 키워드 암기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따로 두문자를 따지 않았습니다. 두문자가 빠져있고 두문자로 자주 듣게 되는 판례는 두문자로, 아닌 판례들은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하였습니다. 일사부재리 판단 시점,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 방법 등 긴 판례들은 맥락을 외워 순서대로 작성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답안지에 암기하여 작성할 수 있다면 그 방식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치며

저는 마지막 GS까지도 책을 떼지 못했습니다. 실전GS 등수는 항상 제일 아래에서부터 찾았었고 40점을 넘지 못해 과락인 적도 많았습니다. 운 좋게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6월까지 꾸역꾸역 역삼에서 GS를 쓰고 7월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진부한 말이지만 7월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